

# 서부발전, AI 점검로봇 본격 도입 현장 설비감시·안전관리 고도화

김포발전본부에 4족 보행로봇 배치  
열화상·가스탐지 등으로 이상 점검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징후 포착  
24시간 모니터링해 관제센터 대응  
설비 점검업무 37% 대체 효과 기대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설비 감시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점검 로봇을 현장에 본격 투입했다.

서부발전은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로봇 도입은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음향 분석 기술을 결합해 발전 현장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설비 진단·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는 고온·고압 설비가 밀집해 있고 구조가 복잡해 자율주행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김포발전본부에 투입된 로봇은 보스턴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모델로, 열화상·소음과 가스 감지 기능을 탑재해 기존 현장 근무자보다 월등히 정밀한 안전 점검이 가능하다.

이 로봇은 영상 관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단독 작업, 작업자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린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와 안전관리 부서가 위반 및 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



한국서부발전은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 투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부발전

다. 서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관제 기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발전본부와 태안발전본부에서 로봇을 시범 운영하며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 운영 안정성을 검증했다.

로봇 도입으로 발전소 감시 체계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로봇은 설비 점검 업무의 약 37%를 대체해 연간 약 73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반복적인 점검 업무를 로봇이 맡게 되면서 현장 인력은 숙련 기술이 필요한 설비 정비와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공주건설본부와 여수건설본부 등 신규 발전소에도 로봇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로봇이 수집한 설비 점검 데이터를 기상모형과 연계해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지능형 로봇은 인력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가상모형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발전 운영 표준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청년농·고령농 잇는 공동영농모델 키운다

농식품부, 2030년까지 100개소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집적 및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영농법인' 육성에 나선다. 이에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법인은 ▲강원 횡성의 횡성공 ▲전북 김제의 제일유연 ▲전북 부안의 풀공 ▲전남 영광의 흥농정보리 ▲경북 상주의 위천천환경 ▲경북 경주의 대청 등 6곳이다.

이 사업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출자와 농지 임대, 농기계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경영 주체를 조직화하고,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0~12월 1차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 공모를 거쳐 1개소를 더 선발해 총 6개소가 확정됐다.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에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법인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구축,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에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되며 1년차 40%, 2년차 60%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대표 사례로 선정된 부안 풀공 법인은 계획면 일대 31헥타르(ha) 규모 농지에서 20개 농가가 참여해 콩과 밀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출자자 5명 전원이 청년농으로 구성돼, 공동영농수익의 일부를 농지 매입에 재투자해 농지를 집적하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재분배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경주 대청 법인은 경북 대표 곡창지대인 안강뜰에서 농지 확보를 확대했다. 벼 중심 재배 구조를 콩과 조স্য로 이모작 체계로 전환해 소득을 높이는 공동영농 모델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법인별 경영 형태와 출자 방식, 경작 규모, 지역 여건 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및 밀착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협, 백설기데이로 우리쌀 소비촉진

청계광장서 시민 1000여명 참여

농협경제지주가 쌀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2026 사랑을 전하는 해피 백설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백설기를 증정했다. '백설기데이'는 화이트데이를 대신해 쌀 소비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해피 백설기 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생일파티 콘셉트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시민대상 하트 백설기 증정 ▲백설기데이 15주년 기념 대형 백설기 케이크 커팅식 ▲생일자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협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 외에도 ▲춘천중학교 ▲농협유통 청주점 ▲창원L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백설기데이 15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백설기 나눠주고 있다. /농협

G세이커스구장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본부와 함께 백설기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백설기데이가 어느덧 15주년을 맞으며, 우리 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농협은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후부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557억 투입... 기업 참여 확대

대통령직속국가기후위대응위원회가 이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대응위 주최로 2024년부터 개최돼 온 이 설명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사업 발굴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처별 '20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과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2026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57억 원이 편성됐다. 부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 251억 원, 산업통상부 215억 원, 국토부 39억 원, 산림청 34억 원, 해수부 1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저속 자율주행 공인시험 첫 구축

한자연, ISO 22737 기반 KOLAS 인정  
서틀·라스트마일 평가체계 구축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국내 최초로 저속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시험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자연은 16일 협력형운전자동화연구센터가 국제표준 ISO 22737 기반 시험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범위 확대를 승인받아 자율주행 서틀버스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ISO 22737은 도심 공원,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 운행되는 저속자율주행(L SAD, Low-Speed Automated Driving)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시속 32km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회피, 경로 준수, 비상 정지 기능 등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자연은 기존 실내(In-Lab) 시뮬레이션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시험 체계를 구축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VRU: Vulnerable Road User)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에 반영해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주행시험장(PG)에서 저속자율주행 공인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전거 운전자를 인식하고 정차한 상황). /한자연

제어 전 과정을 실제 주행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자연이 발행하는 KOLAS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100여 개 가입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별도의 성능 검증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인증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산업통상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한자연은 올해 2분기부터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해양바이오뱅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획득

해수부, 신소재 상용화·수출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가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생물자원은행(KS J ISO 20387)' 인정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고 있는 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자원 중 항산화·항균 등 유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발굴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소재를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 공급한다.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제도란 바이오뱅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저장·분양 등 전 과정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바이오뱅크의 운영체계와 품질관리, 기술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국제적 공인력을 보증한다.

해수부는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을 시작해 현재 지원형 4개, 가능형 3개 등 7개의 해양바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ISO 20387은 해양미생물(세균·균류)에 대한 국제표준 인정으로, 해양바이오뱅크가 제공하는 해양미생물자원의 품질과 신뢰성이 국제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해양생물자원 제품은 화장품, 식품,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해양바이오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